

칸디思想의 研究 (五)

저자 미상

三 (續)

上記한 諸事項 以外에 不畏의 誓 卽 唯一한 神 以外에는 무서워할 者가 업스니, 宗教를 理解키 前에 印度의 運命을 展開하기 前에 먼저 不畏의 習慣을 涵養하라는 것과 國語에 依한 教育 卽 英語를 使用하여 教育을 施하면 印度民族의 特殊 且 固有한 信念, 風俗, 習慣, 道德을 解弛케 함으로, 印度語 特히 梵語를 研究하여 이를 使用함이 可하다는 것과 手工 卽 筋肉勞働은 大自然이 人類에게 課한 責任이란 것을 信條 삼고 工業이라도 機械的 工場工業은 이를 排斥하고 手工業을 獎勵하며, 特히 世界 中の 最大多數는 農業으로써 生活을 營爲함으로 吾人은 一日 若干 時間式은 반다시 土地와 親近히 하자는 것의 條項이 잇스나, 이는 特히 紹介할 必要를 不認함으로 茲에는 略하노라.

四

以上으로써 나는 「칸디」思想의 一斑을 極히 簡略히 紹介하였는데, 이에 依하여 當代 吾人の 耳目을 驚動케 하는 「칸디」는 엇더한 主義를 가졌으며, 그 主義가 어나 程度까지 徹底한지를 알지라. 紐育의 一 基督敎會 牧師는 말하되 「今後의 世界는 彼(칸디)의 압해 泣伏하게 되얏다.」 하얏스니, 이만치 透徹하여 彼는 다못 宗教家로서만 그러할 쏘 아니라 政治家로서도 그러하여, 彼를 冠하되 聖雄이라 한 것을 보더라도 無疑하고 더욱히 「칸디」 自身의 言을 借用하면, 「내가 아는 만흔 宗教家는 宗教家의 假面을 쓴 政治家이지마는 나는 차라리 政治家의 假面을 쓴 宗教家의 氣分으로 잇고 십다.」하는 말이 實로 政敎合一不可離라는 것을 가장 明白히 가랏쳤도다. 元來 印度에는 釋迦를 爲始하여 世界에 有名한 宗教家, 哲學者, 政治家가 輩出한 것은 吾人이 熟知하는 事實이지마는 特히 近代에 至하여 政治家로는 「코크헤일」, 詩人으

로는 「타아골」, 聖雄으로는 「잔디」가 誕生함을 볼 때에 實로 이에 拜치 아니
할 수 업스며, 이에 伏치 아니할 수 업도다. 特히 「잔디」에 至하야는 他國의
屬領인 印度에서 蹶起하야 思想 上으로 世界를 征服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을 볼 때에 吾人은 그 人格과 思想이 다른 強國 卽 英美, 獨佛 등에서 誕
生한 大人格者나 大思想家에 比하야 얼마나 더 質로나 量으로나 偉且大한지
를 推測할 수 잇슬지라. 또한 如何히 偉大한 思想이 잇더라도 萬人이 崇拜
敬伏하게 되라면 卽 그 思想이 價値가 잇스라면, 만다시 그 思想의 所有者가
人格의 所有者를 兼하야야 하나니, 이 意味에서 彼는 實로 言行一致, 不折不
屈이란 것을 生命 삼는 點에서 崇拜받을 만한 價値가 있다고 하노라. 그러나
彼等은 不幸한 境遇와 不利한 時勢를 만나서 彼等이 開拓하려 하든 印度民
族의 運命은 아즉도 이를 展開할 수 업시 今日에 至한 것은 主觀으로나 客
觀으로나 慨嘆치 아니치 못할 것이지만, 이제야 戰後 世界의 思潮는 어나
意味 下에서는 잔디의 獨占物이 되고 印度政局은 잔디의 獨舞臺가 되얏스니,
今後의 世界 思潮의 歸趨와 印度 國民運動의 進行은 吾人에게 注目의 價値
와 研究에 興味를 주리로다. (完)